

開心術(개심술)에 비해 최소절개 심장수술이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적합하며 수술후 통증감소와 조기회복, 미용상의 이점 등 장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서울대병원 김용진-이정렬 교수팀(소아흉부외과)이 지난해 7월부터 올 1월까지 시행한 77례의 최소절개 심장수술사례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종전의 개심술은 목아래쪽에 서부터 명치뼈에 이르기까지 피부와 가슴뼈를 크게 절개하는 수술방식으로 성인은 25~30cm, 소아는 15~20cm를 절개하게 된다.

선천성 심장질환 최소절개술로 "말끔"

서울대병원 시술사례 분석

개심술은 수술상처가 커 회복 때 흉골이 뒤물어지거나 제대로 붙지 않아 부작용이 크고 입원기간이 길뿐 아니라 미용상으로도 보기 흉한 상처를 남기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돼 왔었다.

이에 비해 최소절개술은 흉골의 일부만 절개하고 수술조작을 최소화하면서 심장질환을 치료하

개심술보다 흉터적이고 회복빨라

77례 수술 합병증 한건도 없어

는 최신수술기법으로 절개부위가 4~6cm밖에 안된다. 최소절개 심장수술은 흉골전체를 절개하는 개심술과는 달리 흉골의 일부를 T형, J형, I형, 역C형 등의 형태로 절개해 수술시야를 확보한 후 심장수술을 시행하게 된다. 개심술에 비해 환자에게 주는 신

체적 부담은 크게 줄었지만 시술의사에게는 실력을 요구하는 고난이도의 수술인 셈이다. 시술팀은 이번 최소절개술의 평균 피부절개 길이는 6.3cm였으며 합병증과 수술사망사고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77례의 수술사례중 68례가 선천성 심장질환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심실 및 심방중격결손증 환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중격결손증은 심실과 심방을 나누는 중격(칸막이)에 구멍이 나 심부전과 폐에 물이 차는 폐울혈을 초래하는 심장질환을 말한다.

(朱泰亨기자)